

두경부의 유리 조직 이식술

한림의대 성형외과학교실, 이비인후과학교실

오석준 · 정철훈 · 노영수*

두경부의 일부 조직의 결손은 외상, 선천성 기형, 종양 절제 등으로 발생하게 된다. 결손된 두경부의 재건술은 결손이 작은 경우는 국소 피판술을 이용할 수 있지만 광범위한 결손에서는 원거리 유경 피판 혹은 근피판과 유리 조직 이식술을마 이용할 수 있다. 유경 피판 및 근피판은 유경 길이와 조직 양의 제한으로 일부의 이용에 불과하였다. 유리 조직 이식술은 수혜부의 요건에 충족되는 다양한 조직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두경부 결손의 재건에 유용한 방법이다.

저자는 지난 10년간 54명의 환자에서 57개의 유리 조직 이식술을 두경부 재건에 시행하여 1예는 실패하고 나머지 전 예에서 성공하였다.

두경부 결손의 원인은 전체 54명중 37명이 종양 제거술이었다.

두경부의 재건을 부위별로 나누어 임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두피부는 7예중 2예가 종양에 의한 결손이었고, 유리 활배근관이 선호되었다.

2) 두개저부는 3예로 전부 종양 절제술 후의 재건이었다.

3) 안와 상악부는 11예로 8예가 종양 절제에 의한 재건이었고, 유리 활배근 피판이 광범위한 결손시 주로 사용되었다.

4) 비부는 4예로 재건에 다양한 조직이 이용되었다.

5) 혀부는 12예로 가장 많았고, 6예가 종양에 의한 결손 재건으로 다양한 조직이 이용되었다.

6) 구순부는 2예로 전례가 외상에 의한 결손이었다.

7) 하악부는 11예로 전례가 종양 절제후의 결손으로 주로 유리 장골이식으로 재건하였다.

8) 경부는 6예중 4예가 종양 절제후의 재건이었고, 경부 식도는 공장으로 재건하였다.

저자는 각 부위의 대표적인 증례들을 보고하고, 결과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Analysis of Intraoral Squamous Cell Carcinoma Reconstruction with Radial Forearm Flap

Myoung Chul Park, M.D.,
Davis S. Soutar, M.B., Ch.B., FRCS

Department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Kun Kuk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Cases of squamous cell carcinoma(152) of the oral cavity, treated with surgery, radial forearm flap transfer for reconstruction and adjunctive radiotherapy and chemotherapy, were used for analysis of the factors related to the recurrence and survival.

Tumor positive resection margin($p < 0.05$), extracapsular node spread($p < 0.001$), neck dissection($p < 0.05$), were significant in relation to recurrence. Primary sites, bone invasion did not reach statistical significance in relation to recurrence.

In relation to survival, primary site($p < 0.05$), resection margin($p < 0.001$), bone invasion($p < 0.05$), extracapsular node spread($p < 0.001$) were noted as significant factor for outcomes.

The younger age group(< 50 years) had a higher mortality rate from tumor than other age group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urvival outcome between marginal and segmental mandibulectomy group.

측두와하 접근술의 치험

연세의대 이비인후과학교실